

悲劇 Macbeth에 나타난 Double-vision 考

權 義 武
기초학과

<요 약>

悲劇 Macbeth 作品에 관련된 在來의 여러가지 批評의 背景과 本 作品 分析과 감상에 있어서 主人公의 性格發展, 魔女들의 影響問題 및 Plot의 進行에 立脚한 心像의 展開에서 서로 相反되는 概念들을 찾아 劇에 주는 效果를 檢討해 보았다. 또한 主人公의 悲劇的 性質을 糾明하기 爲하여 Macbeth와 Lady Macbeth의 性格 分析과 아울러 Richard III의 悲劇的 人物의 特性을 比較함과 同時에 Macbeth의 心像 世界와 그 限界를 調査해 보았다.

On the Double-vision of 'Macbeth'

Kwon, Eui Moo
Dept. of Basic Studies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imagery development and dramatic characters of Macbeth and Lady Macbeth shown in the play, including the conventional critical background of the mass-effect of the Three Witches concerned. In doing so, I found that there is plenty of the opposite conception of dualism in the imagery development, i. e. reality and appearance, love-fear theme, order-disorder antithesis, good and evil, light and darkness, etc. which greatly influenced the plot development of the play.

I have attempted character analysis and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acbeth and his wife. I have also a particular comparison with Richard III. Furthermore, I surveyed Macbeth's imagery world and its limitations.

I. 序 論

大體로 中世紀의 運命觀은 Renaissance時代에 와서 그 理念의 變化를 가져왔다. 卽, 悲劇의 概念이 좀더 近代化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Greece 悲劇 Nemesis(應報의 女神)와 같이 必然的인 悲劇의 終末인 죽음이 1600年 近代悲劇의 誕生時에는 그러한 窮極的인 힘에 대한 概念이 缺乏되었다. 이것

은 當時의 基督教이 悲劇의 概念을 破壞해 버렸기 때문에 Elizabeth朝의 悲劇作家들은 기독교적인 要素를 意識의 背後로 물리쳐 버리고 悲劇에 '없어서는 안될 不可避性'(The indispensable inevitability)나 '窮極的인 必然性'(The ultimate necessity)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했다.⁽¹⁾

여기서 對置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發見은 새로운 個性의 追求, 乃至 人間個性의 새로 發見된 驚歎即 人間禮讚이었다. 人間의 意志에 숨은 情熱의

(1) H. B. Charlton, *Shakespearean Tragedy* (1948) p. 2.

힘과 說明할 수 없는 衝動的인 行動, 勿論 決定的인 것은 아닐지라도 人間運命(destiny)을 形成하며 支配하는 宇宙的인 秩序의 世界를 創造하는 것이었다.

Macbeth의 執筆은 1605~1606년이고 初演도 같은 해라고 一般적으로 推定되고 있다.⁽²⁾ 英國 歷史上 이 時期는 政治·社會 分野에서 特別한 變化를 招來했으며, 特히 Henry VIII가 로마 敎廷과의 斷交를 契機로 하여 中世의 普遍世界와 訣別한 絶對君主主權이 갖는 葛藤으로 因하여 政治·社會의 機構를 内部에서 바라보는 vision 즉, 暴力性이 隨伴된 것이 自然스러운 現象이었다.

이런 時代의 思潮는 Renaissance期の 英國의 急速한 變遷과 發展하는 進步的인 思潮와 더불어, 中世紀부터 이어 내려온 保守的인 舊秩序觀을 다같이 不斷히 Shakespeare 作品안에 表現했다고 볼 수 있다. 特히 Elizabeth朝의 文化的인 傳統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自然에 대한 깊은 洞察力과 認識이 不足하여 自然界는 神秘스럽고 魔術的인 色彩가 濃厚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Francis Bacon(1561~1626)이 世俗的인 世上에 對應하여 그의 理想國을 構想한 것은 그가 쓴 Essay에서 볼 수 있으며⁽³⁾, 이것은 當時 Montaigne의 Essay(1580)나 Machiavelli의 Principe(1513)가들이 當時의 文化交流의 事情에 依하여 綜合되어 졌음이 充分히 可能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上記 말한 Bacon과 同時代의 作家인 Shakespeare는 當時의 Renaissance의 물결을 타고 그 天才性을 發揮하여 時代的인 感覺을 銳敏하게 作品을 通하여 反映시켰거나, 特히 當時 演劇의 觀客에 대한 reality를 共感하고 그것을 反映시킨 그의 作品이 갖는 文學的인 意義는 그의 歷史觀, 人間倫理觀, 自然界 및 宇宙觀等に 敏感性이라는 點에서 單純한 것이 아니다.⁽⁴⁾

Shakespeare 뿐만 아니라 一般적으로 演劇表現이라는 特殊의인 表現方法에 있어서 다른 一般的인 表現보다는 時代와 社會의 reality에 보다 直結되어

서야 하고, 同時에 人間의 狀況은 壓縮한다는 特殊性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演劇的인 表現의 限界性과 可能性에의 關心은 Elizabeth朝代의 劇作家로서는 極히 深刻한 問題였으니라 본다.

II. 批評의 方法과 背景

世界文學史上 Shakespeare를 論及한 稱讚과 非難의 對象에 올라서 兩極을 來往해 온 作家는 實을 것이다. 그에 대한 鑑賞과 批判의 歷史는 곧 英國文學의 山歷史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當代의 學者詩人이며 劇作家였던 Ben Jonson(1573—1637)은 Shakespeare를 가리켜 “not of an age, but for all time”이라고 하여 어떤 特定한 時代나 地域에 대해서 偉大할 뿐만 아니라 時代와 空間을 超하여 人類에게 共感과 感動을 주는 詩人이라고 看破했다.

그가 創造한 人物은 ‘四次元的인 넓이와 깊이’를 가지며 그가 觀照·洞察한 世界는 ‘double-vision’의 世界인 것이다.⁽⁵⁾ 심지어 劇의 Plot, 構造, 技巧, 또는 그의 詩의 用語며 한가지도 double-vision의 이 아닌 것이 없다. 그의 作品世界는 一方的·偏狹的인 아니라, 自然的·常識的·普遍的이며 靜的·斷片的인 아니라, 劇的인 要素들로 相互有機的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의 Vision은 作品內容과 技巧에 있어 人類의 智慧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Shakespeare의 批評이 始作되어 Bradley에서 頂點을 이룬 psychological natural realism은 登場人物을 reality와 同一視하여 마치 blood-and-fresh한 ‘friends for life or deceased acquaintance’⁽⁶⁾ 病理學的으로 다루는 方法은 20年代의 歷史的인 方法에 依하여 修正·補完되기도 했으나 오늘날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는 詩의 心像乃至 去像의 本質과 機能을 通하여 Shakespeare 作品의 ‘organic-poetic structure or spatial atmosphere or poetic vision’⁽⁷⁾을 찾으려는 方法은 Shakespeare 解釋에 새로운

(2) H. N. Paul, *The Royal Play of Macbeth* (New York), 1950

That Macbeth was written in 1606 and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on August 7 of that year at Hampton court James I and King of Denmark is virtually certain.

(3) F. Bacon, *Essays* (Everyman's Library, 1955) p. 4.

(4) K. J. Spalding, *The Philosophy of Shakespeare* (George Ronald Oxford, 1954), p. 9.

(5) J. Mulgan & D. M. Davin, *An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1974), p. 12. A. Nicoll, *Shakespeare* (1950), p. 63.

(6) L. C. Knights, *Explorations* (1946), p. 16.

(7) G. W. Knight, *The Wheel of Fire* (1930), p. 4.

次元을 提示한 것이다.

Shakespeare는 歷史의 産物이기에 歷史의 方法的 接近이 必要하였는데 가령 歷史派의 Tillyard와 같이 그의 史劇의 世界를 order-disorder antithesis로 結論짓고, Bradley처럼 悲劇의 本質을 moral order의 回復이라고 論하거나, Imaginist인 G.W. Knight가 Shakespeare의 spatial atmosphere을 單純히 music-tempest theme⁽⁸⁾이라고 各各 제 나름대로 極端的인 結論에 到達하는 것을 보면 어떤 意味에서는 Shakespeare 鑑賞·批評할 수 있는 넓은 可能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ymbolist 등은 Shakespeare劇의 meaning of meanings을 찾아 人物들을 plastic symbols in an arabesque of estoric imagery로 化해 버리고 詩와 劇을 分離시킬 危險性이 있는 것이다.

Plot나 Character 같은 問題를 떠나서 作中人物의 soul-experience을 體驗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meaning of meanings을 너무 強調한 나머지 다시 Bradley의 moral-order로 되돌아간 Charlton의 경우나, 主人公의 內的葛藤으로 因한 行爲에서 오는 悲劇이며 그의 悲劇의 窮極의 意味는 moral-order의 回復이라고 規定한 Bradley의 說⁽⁹⁾을 버리고 全的으로 Symbolist들에게 一邊倒로 加擔할 수가 없는 일이다.

Bradley와 Charlton은 登場人物의 臺詞며, 動機며 行爲를 實在人物같이 다루고 있으나 그의 人物은 「피와 살이 있는」人間이며, 그의 劇은 우리의 reality와는 別로 差異가 없는 것이다.

Shakespeare 作品은 poetic drama이다. 그러므로 poetic imagery만을 細密히 調査하여 그냥 읽어서나 또는 劇場에서 劇을 보고서 보통 깨닫지 못한 深淵한 意味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Shakespeare 作品의 詩는 오히려 表現의 手段이요 本質的으로는 劇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에 附隨되는 行爲며 動機등을 無視하여 鑑賞할 수는 없는

것이다.

性格創造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와 더불어, 또 하나 無視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plot이다. Macbeth와 같은 劇作品은 약시 論及하였지만, poetic drama 이므로 Paradise Lost 같은 dramatic poem의 時間과 行爲의 흐름, 動機와 行爲의 關係는 判異하게 틀린다. 理由는 Shakespeare劇의 image는 行爲를 자아내는 性格의 行動을 通하여 『時間의 連續性에 의거 有機的으로 展開되는 過程』⁽¹⁰⁾을 밟는 것이 必須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各 imagery들이 性格을 表現하고 主題를 만들며, 展開되는 過程에서 孤立的인 것이 아니라, 劇全體에 相互 有機的인 것이다.⁽¹¹⁾

C. Spurgeon女史는 最初로 Imagery의 解釋을 導入하여 Shakespeare의 性格을 把握하는 手段으로 보았으며, 이것을 가지고 作品의 spatial atmosphere을 糾明하는 나머지, 人間은 單純히 poetic vision⁽¹²⁾으로 보아서도 안될 것 같다.

이것은 登場人物을 一貫한 性格과 機能을 가진 살아있는 人間이 아니라, 오직 Shakespeare의 詩를 傳達하는 한낱 抽象的인 記號나 象徵내지 媒介物로 보려는 態度인 것이다. 이것은 複雜性을 지닌 poetic drama를 다루는 正當한 方法은 아닐 것 같다.

그러므로 Macbeth의 世界를 論함에 있어 筆者는 알날이 Image와 Imagery들이 어떤 劇的인 時間의 繼續 안에서 性格發展을 어떻게 시켜서 마침내 Poetic vision이나 spatial atmosphere을 자아내게 했는가를 糾明하는 것이 나의 方法論이 될 것이다.

Ⅲ. 本 論

1. Three Witches.

Macbeth의 幕이 열리자, Three Witches들의 曖昧하고도 意味深長한 말이 雷聲, 번개와 더불어 휩쌓인 엄친한 霧圍氣, 事物의 正體의 不確實性으로

1. I believe the most profitable approach to Shakespeare to be interpretation (a construction of vision) rather than criticism (a judgement of vision) p.16.

2. Large quantities of Shakespeare criticism have wrecked themselves on the teeth of this dualism. p.9.

(8) G.W. Knight, *The Shakespearean Tempest* 1932. p.30.

(9) A.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p.18 & p.22~9.

(10) W.H. Clemens,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1951) p.3.

(11) W.H. Clemens, op. cit., p.3

Sometimes, Shakespeare sought by means of the imagery to lend enhanced expression to the feeling of the character concerned; at often times, it might have been his intent to give the audience a hint towards a understanding what was still to come, or perhaps to provide a counterpoint to one of the central ways of the play ... Every image, every metaphor gains full life and significance only from its context... it always has reference to the whole of the play. It appears as a cell in the organism of the play, linked with it in many ways. p.18.

(12) G.W. Knight, *The Wheel of Fire* op. cit., p.4.

하여 惡의 'The filthy air를 (I. i, 12)를 展開시키고 있다.

劇 全體에 관련된 辟으나 豫言의이며, 暗示의인 Three Witches들의 對話는 이 劇의 性格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미 천둥소리와 같이 自然의 調和는 破壞되고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I. i, 11)의 兩者의 사이에 矛盾을 正當化하는 不條理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Witches를 본 Macbeth將軍은 바로 'So foul and fair a day I have not seen, (I. iii, 38)이다. 이것은 觀客의 心理的인 體驗인 동시에 Macdonald와의 激烈한 戰鬥을 傳해주는 말 'When the battle's lost and won' (I. i, 4)은 그 싸움의 戰況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Hurlyburly' (I. 1. 3)인 것이다.

이거저 doubtful (I. i, 7)이라는 balance을 깨뜨리고 主人公 Macbeth의 마음속에는 動搖가 소용돌이치게 되고 Witches들의 呪文같은 fair-foul-device에 떨어지는 陷穽을 파고 期待하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戰勝將軍으로서 國王으로 부디 祝福을 받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人生의 行路에서 敗北하는 運命('won and lost, I. i, 4)으로 떨어지는 것이 Witches들의 所望의 vision이라고 할 수 있다.

Fair is foul의 兩者性은 이미 이 戰曲이 悲劇 Macbeth의 主題가 될 수 있는 象徴的인 要素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戲曲 Macbeth는 一般의으로 Shakespeare의 어느 劇보다도 이런 對照가 보다 더 強烈한 體系的인 原則에 立脚하여 執筆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主人公 Macbeth는 深淵의 周邊을 움직이고, 生死의 不斷鬭爭은 Plot를 앞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 行爲는 必死의이고, 그에 對한 反動은 무서우리만큼 놀랍다. 全篇을 거쳐 兩極端과 相反되는 心理的 葛藤이 서로 混合되어 鼓動하고 있다. 勝利로부터 絶望에로의 過度, 恐怖의 極致로부터 죽음의 安息에로의 過度는 突然의이고 놀랄만 하다. 그의 思想은 줄곧 暗黑속에서와 같이 서로 부딪친다.

Shakespeare의 決定的인 筆致로서 明暗을 잘 配置하여 異常한 事態의 混沌을 잘 描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幕이 열리면서 주고 받는 Three Witches들의 對話는 辟으나 Macbeth의 마음에 衝動的인 것이다.

Macbeth에 대한 Witches의 影響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때에 따라서는 Witch를 人間의 힘으로는 抵抗할 수 없는 女神, 或은 運命으로 捕捉하려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錯誤라고 본다. 왜냐하면 Shakespeare는 Witch에 대한 民間의 傳說인 The Scottish 'Chronicle' of Holinshed⁽¹³⁾에서와 Reginald Scot의 Discovery (1589) 가운데 記載되어 있는 witch에 對한 概念을 目的을 爲한 材料로 使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로 삼을 對象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의 重點은 Shakespeare가 材源의 內容을 如何히 利用하였는가에 있다. Shakespeare가 Holinshed의 概念을 使用하지 않고 'Weird Sisters'라는 句만을 使用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Weird Sisters'의 豫言이 Macbeth에게 初期에 影響을 준것만은 事實이지만, 影響은 어디까지나 影響이지 그 以外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Macbeth의 劇中에서 Macbeth의 行爲나 Witch들의 行動, Hecate의 힘, 其他 外部의 힘에 依하여 強要되었다는 것을 暗示하여 주는 臺詞의 句節이 없으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본다. Shakespeare는 어디까지나 이 'Weird Sisters'를 危險을 줄 수 있다는 要因이나 存在物로 取扱하고 있을 따름이다.⁽¹⁴⁾

이와는 반대로, Macbeth 行爲에 대하여 Witches의 영향은 크지만, 이는 Macbeth의 가슴속에 無意識的 或은 半意識的 慾望의 象徴的인 表現에 不可하다고 解釋하는 心理主義 一派가 있다. 이것은 Macbeth의 動機에서 外部的인 超越的인 影響을 除去하고, 心理的인 精神的인 意義만을 찾아 보려는 意圖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王冠에 대한 가장 重要한 豫言과 Macduff를 注意 (IV. i, 71)하라는 警告에는 어느 程度 適用될 수 있으나, 온갖 事實과 行爲에는 適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Macbeth는 無意識的이나마, Birnam숲이 Dunsinane까지 움직 (IV. i, 93)이라고는, 또는 女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나이 (IV. i, 80)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보아

(13) *Macbeth* edited by G. S. Gordon. Oxford. 1923, p. iv.

The Chronicles of Ralph Holinshed (d. 1587?), First published in 1578, was Shakespeare's authority for British history. He used the second edition. (1586)

(14) Irving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p. 158.

They do not, however, suggested evil to man, they suggested an object which may incite man's own inclination to evil which is the fruit of original sin, and they do this by means of prophecy.

Witch는 Macbeth의 心中에 갈려있는 或은 底流에 깃들어 있는 惡의 表現으로서의 象徵的인 對象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본다면 心理主義도 不完全 及至 不充分하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象徵의 傾向에도 理由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Macbeth는 凱旋途上에 있는 自己를 보고 'All hail, Macbeth, that shall be king hereafter' (I. iii, 49)라는 王冠에 대한 豫言을 Witch로부터 듣고서는 이에 無關心한 精神의 態度를 取하는 Banquo와는 反對로 놀랐기 때문이다.⁽¹⁵⁾

어느 정도 마음속에 野心이 머리를 들고 있는가가 문제지만, Witch들의 豫言이 Macbeth의 意識가운데 잠들고 있는 王冠에 대한 野心을 깨워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Macbeth가 豫言가운데 表面化하는 그 무엇을 意識하였다라는 것을 象徵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曰 内部的 連結性만 認識한다면 悲劇 Macbeth의 雰圍氣속에 浸透되어 있는 恐怖와 神秘感을 눈이고 深化하는 데 있어서 Witch들의 場面の 効果는 全然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Witch의 屬性은 善과는 因緣이 없는, 人間性과는 相反되는 想像的인 存在로서 그림자같이 曖昧하고 무시무시하니 난처 殘酷的이다. 이 Three Witches들은 Macbeth의 運命과 不可分離의 關係를 맺고 있으며 진면에 흐르는 暗黒과는 이미지가 통하고 있다.

2. Colour Imagery에 대하여

戯曲 全體를 통하여 太陽은 오식 두번밖에, 即 Duncan王이 죽은의 城을 보고 讚揚하는 아름답기도 익살맞은 臺詞(I. vi, 1-10)와 Malcolm의 軍隊가

復讐의 旗幟를 높이 들고 Birnam附近으로 進軍하는 場面(V. iv, 1-22)에 있어서 뿐인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戯曲 Macbeth의 雰圍氣는 完全히 救濟될수 없는 暗黒의 것은 아니다. King Lear의 싸늘하고 희미한 暗黒에 비기면 戯曲 Macbeth는 色彩의 決定的인 印象을 남겨주고 있다. 이것은 鮮明하고 눈이 부신듯한 光線과 色彩의 閃光에 의하여 一時 환하이지는 暗黒한 밤의 印象이라고 할 수 있다.

雷光, Macbeth의 눈앞에서, 深夜의 虛空에서 홀로 빛나는 短劍, 어두운 밤을 비추는 관솔불, 부단 부단 붉은 가마솥에서 나오는 火焰, 特別 鮮명한 色의 色感을 꼽을 수 있다.⁽¹⁶⁾

鮮血에 대한 Image는 事件 自體뿐만 아니라 描寫와 語彙의 反覆에 의하여 不斷히 우리의 心像에 反映된다.⁽¹⁷⁾

이처럼 戯曲 Macbeth에 있어서 暗黒과 이를 비추는 光明과 色彩, 이속을 刮削레이는 暴風, 이에 따르는 狂暴이기도도 巨大한 image는 Witch의 出現과 함께 想像를 奇異와 恐怖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다. 더 나아가 여러가지로 表現된 mass-effect는 이 劇의 imagery를 留意해서 읽어보면 비로 느껴질 것이다.⁽¹⁸⁾

3. Fear에 대한 意味

Shakespeare 全作品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imagery의 面을 檢討하여 볼때 그가 사랑을 所重히 여기는 反面, 不安을 가장 미워하는 情 竊다. love는 모든 좋은것의 源泉이며, fear는 온갖 惡과 罪의 根源이라 본듯 하다. Duncan王이 love를 Macbeth가 fear를 代表하는 것이라고 보며, 곧 fear가 온갖 惡이나 悲劇의 根源인 것이다.⁽¹⁹⁾

(15) Banquo: Why do you start; and seem to fear/Things that do sound so fair?" (I. iii, 51-52)

(16) a) I. ii, 1. 'What bloody man is that?....'

b) I. ii, 17: 'Disdaing fortune....bloody execution....'

c) II. ii, 60 'Will all great Neptune's ocean wash this blood clean my hand....'

d) III. iv, 12: 'Ther's blood upon thy face....'

e) IV. iii, 32 & 40 'Bleed, bleed, poor country!....' (32)

It weeps, it bleeds, and each new day a gash is added to her wounds... (40)

(17) A. C. Bradley, op. cit.,

(18) C. Spurgeon, *Shakespeare's Imagery* (1935) p.154-155.

(19) G. W. Knight, op. cit., Fear is the primary emotion of the Macbeth universe. p.150.

The word fear is ubiquitous, all may be unified as symbols of this emotion, Fear is predominant.... <p.146.

cf. L. B. Campbell, ; *Shakespeare's Tragic Heroes* (1970) Methuen & Co. p.208

The play is really a study in fear, And since fear is but one of a fair of passions, Shakespeare, according to his habits the passion studied against the background of its opposite. Just as *Romeo and Juliet* sounds its Love-hate theme in the beginning, as *Hamlet* stresses the joy-grief pairs of Passions, as *Othello* develops the love-hatred of Jealously, so *Macbeth* develops the study of fear against of its opposite. p.238-9

Macbeth is, however, not only of fear; it is a study in fear. The sound and images in the play combines to give the atmosphere of terror and fear.

See also a footnote: "Ambition" is mentioned three times in *Macbeth*, and "fear" forty two times.

이 fear가 어쩌나 強烈하던지 Banquo까지도 감염되어 劇中의 모든 人物들이 이를 모를 不安과 恐怖에 떨게 마련이다.

Why do I yield to that suggestion,
Whose horrid image doth unfix my hair,
And makes my seated heart knock at my ribs
Against the use of nature? Present fears
Are less than horrible imaginings.
My thought whose murder yet is but fantastical
Shakes so my single state of man that function
Is smother'd in surmise, and nothing is
But what is not. (I. iii, 134-142)

이것은 Macbeth의 罪惡의 씨앗이 煩悶의 過程을 거쳐서 惡이 具體化하는 瞬間일 뿐만 아니라 fear의 imagery들이 가득찬 臺詞이기도 하다.⁽²⁰⁾ 未知의 魂에 대한 恐怖心, 超自然的이며 幻想의 幻에 대한 무서운 想像, 非現實의 深淵, 現實의 無秩序 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여기서 劇全體의 罅이 담겨 있는, Macbeth의 Microcosm의 性格이 나타난다. 不安과 無秩序는 마침내 暗黑의 深淵과 無로 變하고 reality가 unreality로 자리를 바꾸게 된다.⁽²¹⁾

Macbeth는 Witches들의 豫言을 듣고 Banquo처럼 冷靜할 수는 없지만 자기대로 思考를 繼續한다. 이 瞬間까지도 Macbeth는 그 意識속에 不吉한 思想이 마치 도깨비처럼 번쩍 비친일은 있지만 아직은 健全한 人間이었다. 다음 危機는 Malcolm이 後繼者로 指名되고 부터 이다.

The Prince of Cumberland! that is a step,
On which I must fall down, or else o'erleap,
For in my way it lies-Stars hide your fires!
Let not light see my black and deep desire;
(I. iv, 49-50)

弑逆의 순간, —Macbeth에게는 犯罪에 따르는 結果가 무서웠다.

This even-handed justice
Commends the ingredients of our poison'd chalice
To our own lips. He's here in double trust
First, as I am his kinsman and his subject,
Strong both against the deed... (I. vii, 10-14)

왕은 德이 높은 君主인데다가 더군다나 近親이며 자기집에 오신 손님이 아니냐. 그렇다던 弑逆에서

二重의 罪를 犯하게 된다. 여기서 또 한번의 機會에 자기의 反省이 潛在意識을 表示하여 주는 계기를 通하여 主人公 Macbeth의 良心의 소리를 엿들을 수 있다.

Act I. Sc. vii 에서는 이미 精神的 鬭爭은 끝나고 自己의 마음이 向하여 온 惡이 머지 않아 勝利의 凱歌를 울리게 되리라는 것을 意味하여 준다.

....That but this blow
Might be the be-all and the end-all here,
But here, upon this bank and shoal of time
We'd jump the life to come. (I. vii, 4-7)

萬一, 秘密裡에 Duncan王을 殺害할 수 있다면 Macbeth는 弑逆이라는 結果로서 그가 바라던 Imperial theme (I. iii, 129)의 內的 vision을 爭奪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오직 그의 行爲를 抑制하는 것은 'Prudential Fear'이다.

.... I have bought
Golden opinion from all sorts of people,
(I. vii, 32-33)

4. Lady Macbeth의 性格分析

여기서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重要한 内容이 있으니 그것은 Macbeth가 決定的으로 弑逆을 斷行하기 전에 Lady Macbeth의 性格을 結付시켜 考察함으로써 그 特性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殺人과 破壞의 惡靈에게 바치는 祈禱의 무서운 性格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Come, You Spirits
That tends on mortal thoughts, unsex me here,
And fil me, from the crown to the toe topfull
Of direct cruelty! make thick my blood,
Stop up the access and passage to remorse,
That no compunctious visitings of nature
..... Come to my woman's breasts
And take my milk for gall.... (I. v, 41-49)

Lady Macbeth는 'No compunctious visitings of nature (I. v, 46)가 자기 마음속으로 오지 않도록 빌었다. 그러나 이런 大自然의 攝理를 말살하거나 否定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왜냐하면 Duncan王을 弑逆直前に 'Had he not resembled / my father ashe slept I have done it' (II. ii, 14-15)

(20) G. W. Knight, op cit., p. 153.

This is the moment of the birth of evil in *Macbeth* he may have had ambitious thoughts before, may even have intended the murder, but now for the first time he feels its oncoming reality.

(21) D. A. Traversi, *An Approach to Shakespeare* p. 157.

.... It introduces unreality even into the thoughts of murder....

이라고告白하기 때문이다. Duncan 王殺害後에도 손에 묻은 피를 苦惱에 가득찬 눈으로 물끄러미 들여다보코서는 精神의 崩壞狀態에 빠져 손에 묻은 想像의인 피를 不斷히 씻으려고 努力하면서 'All the perfume of Arabia will not sweeten this little hand' (V. ii, 56)하면서 크게 歎息한다.⁽²²⁾

Macbeth가 優柔不斷, 良心의 周邊을 감돌고 있을 때 Lady Macbeth는 至上의 意志와 膽力의 所有者로서 Macbeth에게 勇氣를 북돋아 준다. Macbeth도 自己 婦人의 'undaunted mettle'(I. vii, 73)을 激讚하면서 熱心히 計劃을 敷衍하여 보인다.

Banquo를 殺害하기 前, 男便의 恐怖心を 鎮定시키기 위하여 蔑視하는 語調로 "what's done is done, (III. ii, 12)라고 主張하던 Lady Macbeth도 sleep-walking의 病者가 되고나서 絶望에 빠져 'what's done cannot be done' (V. i, 75)라고 하면서 絶망하게 된다. 이것은 Macbeth와 더불어 心的肉體의으로 轉落되어가는 過程은 惡의 せ앗이 죽음이라는 同一軌道를 달리는 當然한 現象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Macbeth나 Lady Macbeth에 대한 catharsis를 共感할 수 없는 것은⁽²³⁾ 미운 感情보다 차라리 두렵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일까? Macbeth에게 있어서는 Witch 以上으로 誘惑者인 Lady Macbeth를 두고 이미 Goethe는 Super-Witch의 役割을 했다고 喝破했다. Macbeth와 그의 아내가 Duncan王을 殺害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場面은 Shakespeare 作品中에서 가장 훌륭한 장면에 屬한다고 볼 수도 있다.

I am settled, and that bend up
Each corporal agent to this terrible feat
(I. vii, 79-80)

Is this a dagger which I see before me
The handle toward my hand? Come, Let me clutch thee;

I have thee not, and yet I see thee still.
Art thou not, fatal vision, sensible
To feeling as to sight? (II. i, 33-37)

여기서 良心의 불길은 完全히 꺼지고, Macbeth에게는 단지 計劃遂行단이 있을 따름이다. 그의 興奮한 想像은 虛空에서 短劍을 불 만큼 強力하다. 이 短劍을 따라 宿命的인 悲劇의 暗室로 向하여 마치고 보이지 않는 손의 引導로 弒逆의 決行을 爲하여 발

을 옮긴다.

"Sleep no more!
Macbeth does murder sleep," the innocent sleep,
Sleep that knits up the ravell'd sleeve of care,
The death of each day's life, sore labour's bath
Balm of hurt minds, great nature's second course,
Chief nourisher in life's feast, (II. ii, 36-41.)

The imperial (I. iii, 129)와 solely sovereign sway and masterdom (I. v, 18), the golden round (I. v, 29)을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잃은 것은 Sleep이다. 安眠은 사람에게 피로를 풀고, 休息을 가져다 주고, 精神的·肉體의 健康의 象徴이기도 하다. 그러나 安眠이 없으면 不安과 恐怖가 오게 마련이다. 여기서 Sleep는 conventional theme에 지나지 않고 dramatic한 印象을 준다. 이 경우에는 Duncan王은 살아있는 Sleep의 化身처럼 表現되었다고 볼 수 있다. Duncan王을 殺害했다고 생각한 것은, 實은 自己自身の 睡眠을 殺害한 結果이며, 이러한 Irony에서 Macbeth의 主題가 導入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殺害가 끝난 다음의 場面이다. 良心의 鼓動을 울리게 하는 door의 knock소리는 소름이 끼치는 恐怖를 금치 못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는 自己가 놓여 있는 situation을 實感하지 못하고 想像이 날이 갈수록 良心의 네두리를 벗어나 不安과 恐怖로써 Macbeth를 괴롭힌다.

얼마동안 우리들은 Macbeth 부인처럼 마음속 깊은 구석에 들어가 보고 그들의 가장 깊은 사랑을 理解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 큰 罪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緊張感은 増大되고, Macbeth는 Duncan王을 殺害하고 七首를 손에는채 돌아왔다. Lady Macbeth도 馬夫를 죽이려고 그 七首를 殺人現場으로 도로 갖고 나가는 버리는 얼마동안 Macbeth는 혼자 남게 된다.

별안간 밖에서 녹크소리가 들린다. Macbeth는 깜짝 놀라서 「Whence is that knocking?」(II. ii, 58)고 외친다. 그뒤 Lady Macbeth는 남편을 재촉해서 잠옷을 살아있게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녹크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實은 Macduff와 Lenox의 두 귀족이 Duncan王을 찾아 온 것이다.

이 녹크소리의 놀라운 舞臺效果에 대해서는 여러

(22) cf. Macbeth: Ha! They pluck out mine eyes,
Will all great Neptune's ocean wash this blood clean from my hand? No, this my hand will
rather the multitudinous sea incarnardine, Making the green one red (II. ii, 60-64)

(23) H. B. Harrison, *Shakespeare's Tragedy* (1951), p. 190.

批評家들이 한 말이 많다.⁽²⁴⁾ 우리는 이 녹크소리로 말미암아, 急激하게 現實生活로 끌려 돌아오고, Macbeth 夫妻의 음모를 보고 있는 동안 깜박 잊고 있었던 外部世界를 다시 想起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外部世界에서 오는 그 무엇이 우리의 認識에 到達하는 바로 그 瞬間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를 가장 깊이 깨닫는 순간이다. 그 빌안간의 녹크소리가 이 때까지 지나간 모든 장면의 強烈하고 邪惡한 性質을 환히 비추어주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제 말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눈 일로 보고 듣는 것에서 나오는 效果이다. 冊을 읽기만 해서는 이와같은 經驗을 가질 수는 없다. 그 인칭나케도 큰 놀람, 즉 恐怖(Macbeth와 더불어 가지는)와 理解(서의 別世界에서 돌아온것 같은)와 安情感이 식건던 感情은 實際로 그 녹크소리들 듣는다는 經驗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經驗이 豐富하거나 聰明한 讀者는, 勿論 劇의 臺本을 보지만 해도 그 劇이 舞臺에 오르면 어민게 된다는 것을 想像할 수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리고 偉大한 劇의 微妙한 特性이나 重大한 意義는 大部分은 역시 읽어 보아야만 把握할 수가 있다. 무대 위에서는 그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言語의 價値를 充分히 理解하도록 머뭇거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實際로 보아야만 비로소, 充分한 追及力을 發揮할 수 있는 대목도 많다.

未來에 대한 Witches들의 말은 믿고,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Banquo父子의 殺害를 다치고 Macbeth는 밤이던 밤마다 全身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된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곧, 'Full of scorpions is my mind' (Ⅲ. Ⅱ, 36)와 'The torture of the mind' (Ⅲ. Ⅱ, 21)라고 絶叫하게 되며, 때문에 그는 그가 殺害한 Duncan王을 몹시 부디위하게 되며,⁽²⁵⁾ 이것은 확실히 irony이다. 冥中에서 祝賀의 宴會가 열렸을 때 그곳에 피투성이가 된 Banquo의 亡靈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Macbeth에게는 그것이 바로 實體이다. 즉 appearance가 바로 reality 그 自體인 것이다. 이것도 곧 過去와 現在가 共存하는 二律性에 立脚하여 混沌狀態가 깽겨지 亡靈이

侵入하는 것이다.

.....I am in blood
Stepp'd in so far, that, should I wade no more,
Returning were as tedious as go o'er. (Ⅲ. Ⅳ, 136-8)

'Blood will have blood' (Ⅲ. Ⅳ, 122) 라고 외치는 Macbeth는 暴風雨가 뒤길레이는 밤이라고 해도 安心하게 자기 위하여, 또는 運命으로 부더 確實한 證據를 받기 위하여 荒丘의 慘劇을 演出하게 된다. 때문에 Scotland는 無差別한 殺戮에 새로운 寡婦 孤兒의 悲鳴을 듣지 않고기는 해가 지는 날이 없다. 安眠을 영영 잃은 Macbeth는 nightmare의 不安속에⁽²⁶⁾ 시닐리키, 이 不眠의 苦悶相은 Lady Macbeth의 夢魘病에도 잘 나타나 있다. Macbeth의 犯罪는 그의 性格속의 nightmare에 의해 催眠術에 걸린 사람같이 自動적으로 實行에 接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劇의 世界는 'unknownable, hideous, disorderly and irrational'⁽²⁷⁾ 라고 할 것이다.

5. Macbeth의 人物論

그런 Macbeth는 Shakespeare 志願의 悲劇의 主人公답게, 充分한 偉大한 人物이며, 또한 勇猛, 熱情이며, 野心이며, 또는 想像的 能力이 어민 志願의 主人公 보다 양세 適合한 人物이긴 하나 그는 確實히 性格에 致命의 缺陷을 가질 人物이다.

그한 Hamlet王과 같은 高尚한 性品은 갖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어울리기 않은 權力掌握을 위하여 國王이며 親知를 마구 殺害하는 殘忍하고도 양심한 고장기 없는 性格을 갖춘 人物이기도 하다.⁽²⁸⁾

그는 野心家이며, 理性이 不足한 衝動的 人物이며, Witches들의 豫言을 믿을 만큼 道德意識이 薄弱하며, 叛逆者며, 殘忍한 屠殺者며 安眠을 이루기 못하며, 罪意識의 恐怖에 떨며 現實과 幻想은 錯亂하는 偉人이다. 그는 秩序의 破壞者이며, 自己個人의 秩序 뿐만 아니라, 國家·社會의 秩序를 破壞한다. 오늘날의 루테타의 主人公들처럼 自己 스스로 破壞한 秩序위에 秩序를 세우려고 하니 그는 二律背反될 수 밖에 없다. 結局 그는 性格의 致命的인 缺陷을 가지고 惡夢속에 끝내는 救援을 받을 길 없이 絶望속에 悲慘하게 죽는 惡의 象徴이라고 할 수

(24) G. B. Woods,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Movement' (Scott), 1916. p. 1030-86.

See Thomas De Quincey 'On the knocking at the gate in Macbeth'가 특히 有名하다.

(25) Macbeth Duncan is in his grave. After he sleeps well, (Ⅲ. Ⅱ, 22-23).

(26) G. M. Knight, op. cit., p. 146.

(27) G. M. G. W. Knight, op. cit., p. 147.

(28) C. Spurgeon, op. cit., p. 201.

있다.

反面 Duncan王의 性格化에 많은 批評家들에 의해 不平되고 指摘되어 온 바이지만, 劇中에서 表現된 여러가지 imagery에서 알아 볼 수 있다. 倫理的인 面에서 모든 나쁜것을 內包하고 있는 Macbeth의 惡에 대해서 公明正大하고 仁慈하며, 또한 성스러운 Duncan王의 美德은 Macrocosm의 印象을 짚게 하여 준다.

6. Richard III와의 性格比較

一般的으로 批評家들에 의해 Macbeth의 性格을 Richard III와 즐겨 比較한 對象이 되기도 한다. 同一한 環境에서도 精神의 動搖를 보이지 않는 Richard는 Macbeth의 'a terrible feat'(I.vii, 80)가 아니라 serious matter를 極히 沈着하게 處理한다. 그는 弑逆을 犯하고 나지도 그 惡行을 後悔하거나 發覺의 恐怖를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 그의 行爲는 不安이 아니라 熱狂의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는 軌道로 구디 脫線하는 法이 없이 始終如一하게 罪惡을 되풀이 하면서도 危險性에 걸을 겁이 먹거나 困難性에 失望하거나 또는 自己가 犯한 惡行에 反省하거나 슬레거나 하지 않는나. 즉 Richard는 俗世의 人間으로서 自身의 目的 以外의 萬事를 念頭에 두지 않고 그것을 獲得할 手段方法 만을 講究하는 徹頭徹尾 惡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反對로 Macbeth는 自己가 犯한 惡行에 대하여 不斷히 自己를 꾸짖는다.

그는 Othello처럼 戰爭의 浪漫과 사랑의 無限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그의 想像은 興奮하기 쉽고 強烈하지만, 그 限界는 좁다. Macbeth의 想像은 全的으로 그를 애위 산 恐怖의 世界를 徘徊한다.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은 언제나 自己가 犯한 流血의 인 行爲와 그에 따르는 罪惡의 意識으로 부터 오는 心像이다. 이와는 反對로 Richard는 想像의 人間도, 哀愁의 人間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頑強한 意志의 人間이다. 그의 마음 속에서 相反하는 感情의 葛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도 역시 Macbeth과 같이 殺害한 亡靈의 威嚇을 받으나, 이는 但只 꿈속에서 經驗하는 苦痛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는 Macbeth처럼 깨어있는 꿈속에서 苦惱의 深淵을 더듬지 않는다.

Richard III는 精神上의 構造에 있어서 Machiavel-

lianist로서 惡을 위하여 惡을 사랑하며 때에 따라서 一種의 快樂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Macbeth는 Richard III처럼 流血로서 王座의 土臺를 鞏固化하려고 한 篡奪君主이기도 하지만, 兩者사이에는 質과 程度가 相異하다.

7. 人間性的 墮落과 想像力

野心の 노예가 되어 그노록 깊이 實行된 結果로 手中에 넣은 王冠은 一生을 두고 追求한 對象은 아니었다.

Witches들이 暗示할 때까지는 그는 이에 대한 생각 없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野望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願하는 것은 暴君的인 支配가 아니고 卓越한 地位가 가지는 名譽를 愛着하였다.⁽²⁹⁾

이같은 地位는 豫期하였던 것과 같이 虛榮心을 愛撫하여 주는 追從과 尊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차리지, Macbeth는 크게 落心하여,

I am sick at heart....
I have liv'd long enough : my way of life
Is fall'n into the sear, the yellow leaf,
(V. iii, 19-21)

라고 읊조린다. 苦難과 惡夢의 一生을 鬭爭하면서 살아온 Macbeth에게는 마지막 救援策이었던 自己夫人마저 世上은 他界였다는 消息과 더불어 이태껏 살아온 人生 歷史가 허무한 꿈처럼 어거졌을 것이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V. v, 19-28)

살아 온 人生의 虛無感! 말할 수 없는 絶望, 이나 諦念이 깃들여 있는 이 臺詞에는 지금까지의 imagery들이 集約되어 있기도 하지만, 光明과 暗黑의 對照, 實在人生과 俳優의 대조며, 'Sound imagery'⁽³⁰⁾의 樣相과 Macbeth의 性格을 如實히 表現하고 있다. Macbeth의 精神에 큰 影響을 주던 偉大한 邪惡한 女性인 자기 夫人이 世上을 떠났다는

(29) This have I thought good to deliver thee, my dearest partner. What greatness is promised thee" (I. v, 11-15)
(30) C. Spurgeon. op. cit., p. 331.

消息을 듣자 그는 가장 구슬픈 語調로 一個人의 悲嘆이 아니라, 人生의 허무를 論한다. 이들은 다같이 幸福을 땀에 걸고 人生을 도박질 한 것이다. 그러나 그 結果는 쓰디쓴 幻滅의 悲哀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자기 人生에 대한 輓歌인 同時에 人生의 葬送曲이 될 수도 있으며 共同的으로 經驗한 敗北의 人生 告白이라고 할 수 있다.

人生 歷史의 創造者인 時間은 그에게는 無意味하다. 그는 이제부터 時間과 自然으로부터 孤立된 한낱 'walking shadow'요, 'poor play'일 뿐이다. 꽃밭같이 붉은 人生을 이에게는 'idiot'가 울부짖는 무의미한 sound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은 reality와 appearance 사이에 처하여 方向感을 잃고 있는 主人公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Macbeth는 그의 奇妙한 環境으로 부디 推測한다면, 命熱과 悲運의 二重奴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現實의 世界와 想像의 世界사이에 영거주者 狀態를 돌고서 있다. 그의 想像은 超自然的인 映象은 捕捉하여 超自然的인 印象과 接觸할 수 있으며 超自然的인 恐怖에 應酬할 수가 있다. 卽, Macbeth의 想像은 어떤 限界內에 있어서는 詩人的인 想像으로서, 一面에서는 어떤 種類의 印象에 極端의 受感性이 銳敏하고, 他面에서는 情神의 交亂을 招來할 수 있는 想像이다. 이같은 想像을 通하여 良心의 소리등 듣게 되고 恐怖의 光景이 엿보인다. Macbeth는 한 때에 있어서는 밤이 외치는 소리만 듣고 全身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戰慄感을 經驗한 時節도 있었고 무서무서한 이야기만 들어도 머릿덜이 우뚝 일어서는 時期도 있었다.

A. C. Bradley도 指摘한 바와 같이 Macbeth의 想像에는 限界가 있다.⁽³¹⁾ 그의 想像은 Hamlet王子의 普遍的인 臆想의인 것과 다르며, 人間의 뛰어난 理性과 無限한 能力을 臆想하지도 못하고 黃金으로 수놓은 듯한 시 雄大無邊한 蒼空을 보지도 못한다. 卽, Macbeth는 人間의 情神의 榮光과 世界에 대한 美的 特異한 受感性을 보이 주고 있다.

Shakespeare의 悲劇中에서 가장 抽象的인 想像을 가장 靜巧의로 表現한 臺詞의 경우에도 imagery가 spatial atmosphere와 性格을 다같이 나타내 준다. 悲劇에서 'The imagery expresses the mutual

relationship of the forces at work in human nature'⁽³²⁾인 것이다. 이것은 性格이 imagery로 表現된 좋은 例이며 imagery가 思想과 不可分의 관계가 있음을 意味하기도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Macbeth는 想像의 人間이라 幻想의 Image에 世界에서 있어서 支配의 主題를 찾아하고 있다. 想像은 그에게 있어서는 現實보다 더욱 眞實하다. 'Nothing is but what is not'(I. iii. 141)이라든가 Macbeth의 幻想的인 Image中에서 가장 壯大한 것을(II. ii. 60) 들어 보면 image은 色彩는 鮮明하고 麻醉劑를 마신 사람의 꿈을 暗示하여 주는 것 같다. Macbeth는 現在를 'shoal of time'(I. vii. 6)이라 부르고, 永遠을 無限한 大洋으로 比喻하고 있다. 그의 象徴的인 image도 역시 幻想的이다. 그러나 罪惡의 過程은 어김없이 精神的으로 Macbeth를 荒廢하게 만든다. 敍曲 Macbeth의 進展過程으로 본다면 'Good things of day begin to drop and drowse'(III. ii. 52)라는 主人公의 臺詞나 혹은 'A great perturbation of nature'(V. i. 10)라는 醫師의 診斷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主人公 Macbeth의 心像 category는 巨大하고 雄辯的이지만, 現實에 비추어 볼때 虛望하기가 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Ⅲ. 結 論

要컨대 敍曲 Macbeth는 道德的 說得을 위한 두 犯罪人의 深奧한 心理 分析도 아니고, James王時代의 鬼神學에 대한 論文도 아니다. Macbeth는 어디까지나 偉大한 悲劇이다. Shakespeare의 悲劇的 幻想이 그 實在性에 있어서 것처럼 莊嚴하고 무서우리만치 說服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두고 道德的 寓話를 云云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制限된 意識으로서의 到底히 意識할 수 없는 莊嚴과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 劇 終章에서 Malcolm의 詛呪한 憎惡는 'This dead butcher and his fiend-like queen'(V. iii. 98)으로 銘記하고 있으나, Macbeth가 홀린 괴도 그가 타고난 humanity를 根絶할 수 없고, 그의 光輝를 末殺할 수는 없다. 演劇의 不可避的인 大團圓을 向하히 進行함에 따라 Macbeth의 깊은 分解의 過程에 들어 선다. 우리는 瞬間的 이나타, 그가 犯한 罪를 容恕하고 싶은 衝動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Renaissance時代에 要求되었

(31) A. C. Bradley, op. cit., p. 313.

(32) W. P. Clemens, op. cit., p. 97.

던 巨人精神을 그대로 反映하는 양 그의 人物은 巨大하여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呼訴하는 人物로 되어 보인다.

確實히 Shakespeare는 「世界를 支配하고 있는 人間이 避할 수 없는 힘」을 믿고 「善한 것」이 이러한 避할 수 없는 힘과 均衡을 잡을 수가 있다는 信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對立의 힘이 특히 Macbeth의 劇에는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人間精神의 兩極性, 變轉하는 外向的 傾斜는 內心的 惡의 씨앗이 자라 破滅의 苦痛을 切感케 하는 內的 vision, 生과 死, 存在와 無, 善과 惡의 관련된 Macrocosm와 Microcosm의 對決, 낮과밤이 交錯하듯이 Macbeth의 實體感은 分離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世界라는 한개의 舞臺上에서 刹那的 幻影, 救授받지 못하는 希望없는 苦悶, 벌써 아무래도 意味를 붙일 수 없는 人生, 超人間的인 惡에 의하여 밀려가는 不條理한 陰謀에서 發生하는 敗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G.W. Knight는 그의 著書(The Wheel of Fire)에서 이 悲劇을 가리켜 “Macbeth is the apocalypse of evil” (p.158)이라고 含蓄性있게 定義하고 있다.

考 參 文 籍

1. (Text) Gordon, G.S. edited. *Macbeth*. Oxford (1923)
2. K. Onions, C. T. *A Shakespeare Glossary* Oxford (1969)
3. Knight, G. W. *The Imperial Theme*. Methuen (1968)
4. H. Michel, L. & Sewall R. B. *Tragedy*. Prentice-Hall (1968)
5. Bradley, A.C. *Oxford Lectures on Poetry* London (Macmillan) (1959)
6. M. Hudson, W. 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iterature*. London (1958)
7. Campbell, L.B. *Shakespeare's Tragic Heroes* Methuen. (1970)
8. Ribner, Irving. *Patterns in Shakespearian Tragedy* Methuen (1969)
9. Traversi, D. A. *An Approach to Shakespeare*. New York (1956)
10. Bradley, A.C. *Shakespearean Criticism*. London (Macmillan), (1960)
11. Clemen, W.H.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Methuen. (1969)
12. Anne Sidler, selected by, *Shakespeare Criticism* (1919—35) The World's Oxford. (1962)
13. Knight, G.W. *The Wheel of Fire* Meridian BK, 1957
14. Bacon, F. *Essays*. Everyman's Library (1955)
15. Spalding, K.J. *The Philosophy of Shakespeare*. Oxford. (1954)
16. Nicoll, A. *Shakespeare* London. (1950)
17. Mulgan, J. & Davin, D.M. *An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Oxford (1947)
18. Charlton, H. B. *Shakespearian Tragedy* Oxford. (1948)
19. K. Nights. L.C. *Explorations* (1945)
20. Spurgeon, C. *Shakespeare's Imagery* Oxford (1935)